

# 광주-전남 발전연구 통합 '표류'

### 시·도의회 올 첫 임시회서 조례 상정 않기로

### 상생 발전의 상징 ... 공청회 등 장기화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 작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례가 시·도의회에서 통과해야 통합이 가능하지만, 시·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출범한 민선 6기 광주-전남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추진된 통합작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첫 임시회(235회)를 3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원하지만,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관련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는 대신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5월 전

남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대구·경북연구원을 둘러보는 등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도의회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경남 광주시의회 행사위원장은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관련 조례안은 대구·경북연구원 분석과 의원들간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회기에 처리할 예정이다"면서 이번 회기중 상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경북을 방문해 사례 조사를 한 뒤 광주시와 공동으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차후에 의결할 방침이다.

시·도의회에서는 차후에 새 단체장들이 분리를 추진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가 제출한 관련 조례안에서 양 발전연구원의 통합 명칭은 광주전남연구원이다.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은 지난해 10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의욕적으로 발족시킨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상생과제 중 하나로, 상생의 상징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애초 예정했던 지난해 연말 시한을 넘긴데다 시·도의회가 공청회·토론회 등의 통합 여부에 대한 검증 기간을 거칠 경우 시·도지사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남발전연구원은 통합작업에 대비해 지난달 24일까지인 이견철 원장의 임기를 '통합때까지'로 연장했으며, 광주발전연구원은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후임 원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 "빛가람 혁신도시, 신 전력수도이자 에너지 허브될 것"

### 조환의 한전사장, 광주시청서 특강

조환의 한전사장(사진)은 2일 "빛가람 혁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신 '전력수도'이자 세계속의 에너지 허브가 될 것"이라며 "한전이 광주와 함께 에너지밸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청을 방문한 조 사장은 "빛고를 E&C 아카데미"의 초청강사로 나선 뒤 "에너지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KEPCO"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끊임없이 혁신하지 않은 국가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한전은 참으로 특이한 회사"라는 시작말로 청중의 귀를 열었다.

조 사장은 "한전은 한전정기시절부터

117년 동안 한 번도 전력이라는 제품을 바꾼 적이 없는 회사이고, 사장은 지하철에 띠를 두르고 나타나 자신의 회사 제품을 적게 이용해 달라고 호소하는 웃기는 회사다"라며 한전의 독특하고 복잡한 운영 구조를 유머와 버무려 설명했다.

조 사장은 한전의 가치에 대해서는 "117년 동안 통합과 분할을 거듭하며 한전은 국내에서야 천덕꾸러기 공기업이지만, 세계에 나가면 가장 우수한 발전소를 가장 빨리 짓는 기업, 전력손실을 3%라는 우수한 성과를 자랑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정부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며 자기 혁신을 하고 투자를 계속해 지금



의 한전이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도시 이전 이후 한전의 역할도 단지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공장을 유지하는 기업의 의미를 넘어서 광주-전남 지역에서 혁신을 창출해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내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광주시의 지원과 한전 투자를 통해 기업 500개 유치, 전문 인력 1000명 양성, 에너지 효율 10% 향상이라는 목표를 담은 에너지밸리에 26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전혀 허수가 없다"며 지역 내 투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만의 힘, 섬·광양항·순천만·한전·중국 접근성"

### 이낙연지사, 5가지 제시

이낙연 전남지사는 "섬, 광양항, 순천만, 한국전력, 중국과 접근성 등 전남만이 가진 특별한 힘 5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일 정례대회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토대로 지방이라는 한계의 틀에서 벗어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늦추지 않고 가시화해 나가고, 장기적인 큰 사업은 시작 전에 긴 호흡으로 충분히 검증하

고 준비를 갖추자"며 이같이 제시했다.

이 지사는 "세계에서 섬 개수로만 볼 때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이어 4번째로 많고, 전남이 우리나라 섬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가고 싶은 섬' 가꾸기를 시작했다"며 "어떤 부부가 일생을 바친 열정으로 가꾼 경남 외도와 산업폐기물로 버려진 섬을 교육문화사업재단과 천재 예술가들의 열정으로 가꾸진 일본 나오시마 섬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양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양항정책 때문에 격정이 있지만, 대한민국 두번째 항구로써 주위에 석유화학과 철강 등 어떠한 생산단지가 있다"며 광양항의 성장가능성을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어 "친환경 농수산물 범주에 속하는 순천만 환경과,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식량, 환경, 에너지 3대 위기를 전남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전남을 빼고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U대회 D-150 ... 김윤석 조직위 사무총장 인터뷰



# "호남 색깔 담은 개·폐회식 준비"

광주U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 발족한 이후, 만 5년 동안 철저하게 대회 준비를 해왔다. 이제 2월 3일로, 대회 개막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에서 선수 및 임원단 2만여명이 참여하는 호남권의 역대 가장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광주U대회조직위와 시·자치구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국내의 현장 홍보와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윤석 광주U대회조직위 사무총장을 만났다.

-대회 150일전이다. 이제 실천만 남은 것 같은데.

▲현재 모든 준비를 '실전 중심'으로 전환해 운영매뉴얼을 현장에 직접 대비시켜 카운트다운에 임하고 있다. 내일 당장 대회가 열린다는 각오로 조직위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직을 현장중심체계로 전환해 실전능력을 키우고 있다. 경기장, 훈련장 관련 경기운영 부문과 선수단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 등 대회 실전체계에서 역할이 커지는 분야를 대폭 강화했다.

3월 1일부터는 대회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이 운영되는데, 총 74개 경기 및 비경기 시설의 현장상황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점검은 어떻게 진행되나?

▲광주U대회 시작을 알리는 테스트 이벤트는 경기운영 역량을 사전 점검, 보완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다. 4월부터 6월까지

### 모든 준비 실전중심 전환

### 운영 매뉴얼 현장에 대비

### 현장 '컨트롤 타워' 역할

### 종합상황실 내달부터 가동

### 4~6월 경기운영 확인

### 15개 종목 테스트 이벤트

총 15개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4월에는 신축경기장에서 리듬체조·기계체조·테니스·양궁 등 4개 종목을 개최함으로써 본대회에 앞서 경기 운영을 확인하게 된다. 이 외에 기록·계측 장비 적용 경기인 육상, 수영 대회가 각각 월드컵 경기장과 남부대국체육장에서 열리며, 펜싱 모의대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오는 4월 11~15일까지 열리는 '국가별 대표단장 사전회의' 역시 본격적인 현장 체제로서의 의미가 있다.

-광주 문화 체험 행사들이 있는가?

▲물총축제, 락페스티벌, 사적국제 포크음악제, 대인예술야시장, 사적국제포크음악제 등 매해 열고 있는 축제들의 기간을 조정하거나 새롭게 기획해 청년들이 광주의 진면목을 느끼고 열정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호남의 색깔을 담은 품격 있는 개·폐회식도 준비 중이다.

-안전대회를 위한 준비는?

▲현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해 국가별 맞춤형 대응, 현장중심 대책을 추진키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안전대책 기본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0월에는 31사단·경찰청·소방본부·환경청·식약처 등 10개 기관과 안전 대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달 중으로 경기장 38곳, 선수촌·ITO빌리지, 메인미디어센터(MMC), 본부호텔 등 현장운영계획(VOP)을 보완해 된다. 5월중에는 대회 시설현황, 출입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다.

-UN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행사이고 의미는?

▲3월~13일까지 호남에서 진행되는 '2015 유스리더십프로그램'은 UN과 조직위가 함께 지구촌 청년들의 열정과 비전을 키우는 공동 프로젝트다. 광주에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최초로 지난 2013년 첫 개최된 이후 광주U대회 원년인 올해까지 매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해 인류발전을 모색하는 광주U대회의 정신을 UN과 함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올해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분장지역 및 저소득국가 15개국의 18~25세의 청년 32명이 참여한다.

2월 11일에는 '2015 EPICS 포럼'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광주U대회의 비전인 EPIC(Eco, Peace, IT, Culture)과 UN스포츠개발부와사무국의 가치인 '개발과 평화를 위한 스포츠'를 세계 청년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